

지찬 스님의 시그니처 캐릭터 '어라'



아도 스님의 문수동자를 모티브로 한 어린 아이 '수야'



'유노'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윤호** 스님이 주로 선보이는 동자승 캐릭터.



벼리 스님은 글과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낸다.

'그림 그리는 스님들' 그들이 뭉쳤다!

지찬·아도·윤호·벼리 스님 소모임 '그스님'을 만나다

그림그리기 취미 수행자 모여
페이스북 페이지 '그스님' 개설

스님들은 산속에 존재를 감추고 살거나 법석에 앉아 불자들을 만나는 일이 전부라는 것은 옛말. 요즘 젊은 스님들은 노래·스포츠·글·그림 등을 통해 자신의 끼와 재능을 여과 없이 분출한다. 페이스북·유튜브 등 SNS에서 랩하고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스님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그림 그리는 스님들의 온·오프라인 소모임 '그스님'은 조금 특별하다. 선방에서 수행만 하던 스님들이 그림 하나로 뭉쳐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스님(guusunim)'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각자의 개성을 살린 작품들을 사람들에게 선보인다.

'그스님'은 이미 불교 카투니스트 '어라 스님'으로 활동하며 인기를 끈 지찬 스님을 중심으로 뭉쳤다. 곳곳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스님들이 많은데, 이들이 불자들과 더욱 가까이 만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지찬 스님은 "내가 '어라'란 캐릭터로 만화를 그리며 알려지니, 평소 만화에 관심 있던 스님들이 이것저것 물어왔다. 그러다 그 스님들을 한데 모아 주기적으로 작품을 소개하면 대중들이 참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취미를 가진 스님들이 모이니 정보 공유도 쉽고, 정서를 나누기도 좋다"면서 "그림 뿐 아니라 사진, 글 등 다양한 콘텐츠에 장기를 가진 스님들 모두 환영한다. 추후에는 함께 전시회를 열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어라·아도·윤호·벼리 스님이 만났다. 4명의 스님은 만화 캐릭터, 글과 어울리는 그림 등 독창적인 작품들을 '그스님'을 통해 소개한다. 수행자들의 그림답게 동자승, 연꽃,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문구는 빠지지 않는다.

아도 스님은 동자승 '나도동자'와 문수동자를 모티브로 한 어린아이 '수야' 캐릭터를 그린다. '나도동자'라는 이름은 선한 일을 행하는데 있어 망설임 없이 '나도!'라고 외칠 수 있는 천진한 동자의 모습을 담아 지었다.

대학원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기 전까지 그림을 한 번도 그린 적 없다는 아도 스님은 "동자승은 종교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한다. 회화로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 캐릭터를 그리기 시작했다"면서 "'그스님'을 통해 SNS에 그림을 게재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유노 스님'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윤호 스님은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호주 멜버른에 애니메이션을 배우러 갈만큼 열정이 남다르다. 사중 행사를 위해 간간이 그림을 그리다가 그스님 및 SNS를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윤호 스님은 "승가대학에 다닐 때도 주변에 손재주 있는 스님들이 참 많은데 왜 발현되지 않을까라는 의아함이 있었다. 그림을 통해 포교를 하면 일반인들에게도 편견 없이 다가갈 수 있어 좋다"면서 "'그스님' 활동이 더 활발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벼리 스님은 그림보다 글이 주특기다. 글만 쓰는 것이 허전해보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의외의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벼리 스님은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을 일기처럼 글로 적었다. 그런데 혼자만의 느낌으로 그칠 수 있는 글들을 SNS를 통해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면서 "또 스님들로부터 조언을 얻으며 아이디어를 얻고 경험이 풍부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단순히 페이스북 페이지에 작품을 공개하는 것만이 아닌, 각자의 작품을 굿즈(goods)로 제작해 선보이기도 하는 '그스님'들. 화려하거나 고전적이지는 않아도 편안하고 톡톡 튀는 젊은 세대 취향저격 콘텐츠로써 미래 세대 포교를 이끌어 가고 있다. **박아름 기자**

송광사 대숲에서 '모든 것'을 찾다

불일미술관, 조은령 초대전 9월 10일까지

대나무 숲으로 달려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치던 미다스 왕의 왕실 이발사처럼 마음 속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조은령 작가의 그림 속 송광사 대나무 숲으로 떠나보자. "6월의 송광사에는 1월에 있던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채워져 있었다"고 말하는 작가처럼 보는 이도 묵은 것을 잊고 새로운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법련사(주지 진경) 불일미술관은 조은령 초대전 'Echoes-대나무 숲으로 그리고 대나무 숲으로부터'를 9월 10일까지 1관에서 개최한다.

조은령 작가는 서울대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 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제1회 개인전을 시작으로 2008년 '내 마음의 은유', 2010년 '書架에서 기억의 그림자를 만나다', 2013년 '한국화-힐링을 만나다', 2016년 '미궁-자존적인 정체성 혹은 배타적인 경계' 등 6차례 개인전을 연바 있다. 또한 제2회 MBC미술대전 우수상,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에 입상했다.

조 작가의 이번 전시는 그리스 신화의 미노스 왕과 신라 제48대 경문왕 때의 설화로부터 시작한다. 비밀을 간직한 이들이 대나무 숲에서 외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외침 바람이 불면 허공에 울려 퍼졌다는 이야기다.

조 작가의 마음 속 대나무 숲은 교토의 아라시야마(嵐山)이자 송광사다. 조 작가는 송광사 대나무 숲을 여러 번 찾았던 일을 회상하며 "매번 참 다른 풍경이다. 다시 대나무 숲에 앉았을 때 내 귓가가 복잡해졌다. 대나무 숲의 정적 사이로 울림들이 퍼졌다. 1월의 풍경 소리, 북소리, 독경 소리, 그리고 파괴된 불상의 얼굴들이 울려오기 시작했다. 대숲에는 아무 것도 없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의 울림이 있었다. 모든 것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은령 作 'Echoes-대나무 숲으로 그리고 대나무 숲으로부터' I

조 작가는 대나무 숲에서 계절이 바뀜에 따라 느낀 바를 화폭 속에 고스란히 담았다. 불일미술관은 "작가 노트를 음미하며 작품을 본다면 관객들도 어느새 송광사 대숲 한 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일미술관은 최은숙 신인작가 공모전 '공존의 경계'도 9월 10일까지 2관에서 연다. 최은숙 작가는 단국대 동양화과를 졸업해 홍익대 대학원에서 동양화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또한 동대학원서 동양화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박아름 기자**

버려진 파편, 새 생명으로 '재탄생'

스페이스선+, 조재 작가 개인전 9월 12일까지

도시 속 소비되고 버려진 파편들이 모여 하나의 미술작품으로 재탄생했다. 새로운 생명으로 진화한 파편들은 그 존재를 다시 인정받은 채 위용을 드러낸다. 하지만 또다시 누군가에게 소비될 것이 자명하다. 조재 작가는 그 사이클에 주목한다.

서울 삼청동 스페이스선+은 조재 작가의 3번째 개인전 'Object Chain: 사물이 움직이는 방향'을 9월 12일까지 연다.

조재 작가는 소비되고 버려진 파편들을 재조합해 새로운 오브제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철저히 작가의 본능과 직관에 의존해 만들어지는 작품들은 자신이 속했던 원본으로 돌아가려는 동경과 새 존재로서 탄생에 대한 기대를 함께 뿜어낸다.

조재 작가는 "이 덩어리들은 매우 아슬아슬하고 약한 결합의 구조물로, 언제든 다시 붕괴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 불완전성 속에서 나는 새로운 맥락을 던진다. 극적으로 대비되는 이 중성은 불안하게, 그리고 즉흥적으로 나의 순간적인 손길을 만나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먹이사슬'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조재 작가의 조형 및 회화 작품 등이 선보여진다.

(02)732-0732 **박아름 기자**



조재 作, 기다란 덩어리, 혼합재료, 가변크기, 2017

용성 스님 가르침, 예술·문화로 승화

2017용성문화제 9월 24일 우면산 대성사서
'해설이 있는 불교의례' 등 프로그램 '다채'

용성 스님의 3가지 교화 지침, 생활화·대중화·지성화를 목표로 불교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2017 용성문화제가 9월 24일 오전 10시~오후 5시 백제불교 초전법륜성지 우면산 대성사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어산작법보존회가 주최하고 불교의례문화연구소·아트플랫폼 주인공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해설이 있는 불교의례 △올해의 불교미술인상 △청소년 그림축제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해설이 있는 불교의례'는 범패(복청게)·바라춤(천수바라)·나비춤(도량게 작법)·법고춤(법고) 등 불교의례를 해설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다.

아울러 올해의 불교미술인상은 총 3명 △류종민 중앙대 명예교수(불교미술 특별상) △이성도 조각가(올해의 불교미술인상) △서수영 동덕여대 겸임교수(올해의 청년작가상)로 선정됐다.

류종민 교수는 서울대 미술대 조소과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해 중앙대 예술대학장을 역임하고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초대작가, 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등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성도 교수는 서울대 미술대 조소과 및 동대학원 조소전공을 졸업해 현재 한국교원대 교수 및 한국미술교육학회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수영 교수는 동덕여대 대학원 미술학 조형예술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편 청소년 그림축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10시~오후 4시 대성사 경내에서 열린다. 주제는 자유주제 및 불교의례·절 풍경 등이다.

시상내역은 △국회의장상(1명, 상금 100만원) △국회부의장상(1명, 상금 5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1명, 상금 30만원) △서울시장상(1명, 상금 20만원) △조계종 총무원장상·포교원장상·교육원장상(각 2명, 상금 10만원) △대회장상(10명, 문화상품권 5만원) 등이다.

접수는 홈페이지(www.daeseongsa.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9월 22일까지 이메일(2017ys@daum.net)로 보내면 된다.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